

삼성전자, 미국 특허등록 13위

특허청, LG필립스LCD는 84위로 상승 ... 현대전자 60위 하락

일본 후지쓰와 삼성전자의 PDP 특허 분쟁으로 국제특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2003년 국내기업이 미국에 등록한 특허건수는 총 4198건으로 미국 내 외국인 특허등록 순위 5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하동만)에 따르면, 2003년 미국 내 300대 다등록기업 가운데 한국기업은 하이닉스 반도체, 현대 전자산업, 삼성SDI,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포함된 10사로 증가했다.

미국지재권자협회 IPO(Intellectual Property Owners Association)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03년 미국 내 특허 다등록기업 순위에서 IBM이 3415건을 등록해 1위를 차지했으며 한국의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10개 기업이 300대 기업에 포함됐다.

특히, 삼성전기와 한국과학기술원이 각각 79건, 60건을 등록하면서 새롭게 300대 다등록기업 순위에 진입했다.

삼성전자는 1313건의 특허를 등록하며 세계 13위, 국내기업 가운데 1위에 올랐고, LG전자도 409건의 특허를 등록해 세계 48위를 차지했다.

LG필립스LCD는 222개의 특허를 등록 84위를 차지해 세계 100위권 내에 진입했으며 삼성SDI도 118건의 특허등록으로 세계순위 150위권을 차지했다.

미국 내 300대 다등록기업 중 한국기업 순위 (단위: 건)

회사명	순 위			등록건수		
	2002	2003	증 감	2002	2003	증 감
삼성전자	12	13	-1	1,328	1,313	-15
LG전자	52	48	4	340	409	69
하이닉스 반도체	173	78	95	99	244	145
LG필립스LCD	113	84	29	149	222	73
현대전자산업	48	108	-60	391	179	-212
삼성SDI	163	150	13	108	118	10
현대자동차	118	161	-43	145	105	-4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89	166	23	89	102	13
삼성전기		223			79	
한국과학기술원		291			60	

그러나 삼성전자는 2002년에는 12위에서 2003년에는 13위로 순위가 한 단계 낮아졌고, 현대전자산업도 108위로 2002년보다 무려 60위나 순위가 떨어졌다.

특허청은 “미국 300대 다등록기업 순위에 국내기업 10사가 포함된 것은 한국의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짐과 동시에 기술경쟁력이 상승하고 개발된 기술은 국제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화학저널 2004/06/14>